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림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박성화호’ 두바이로 출격

내달 17일 시리아전 대비 시차적응 훈련 박주영·이청용 등 29명 예비명단 발표

패조의 3연승으로 ‘베이징행 티켓’에 한 발짝 다가선 박성화호가 내달 예정된 시리아 원정에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전지훈련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올림픽축구대표팀이 시리아와 2007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4차전 원정(한국시간 10월17일 오후 10시)을 앞두고 9일 출국해 두바이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친 뒤 경기 직전에 시리아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화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중동 원정은 시차 적응이 꼭 필요한 만큼 시리아에 들어가 앞서 두바이에서 적응훈련을 가질 계획”이라며 “전지훈련 기간에 현지 프로팀이나 올림픽대표팀 등을 섭외해 연습경기를 한 차례 치를 생각이다. 현재 축구협회에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예비명단 29명을 축구협회에 통보하고 FA컵 4강전(10월 3일)이 끝나고 난 뒤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해 최종 명단을 확정할 것”이라며 “부상에서 회복된 박주영과 이청용(이상 서울)도 예비명단에 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등 부상에서 회복해 K-리그 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있는 박주영은 이번 시리아 원정을 통해 2월28일 예멘과 2차 예선 1차전 이후 무려 7개월 여 만에 올림픽대표팀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리아 원정에는 최근 빼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기성용(서울)이 경교누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또 신영록(수원), 김승용(광주), 한동원(성남) 등 주전급 선수들이 경교 1개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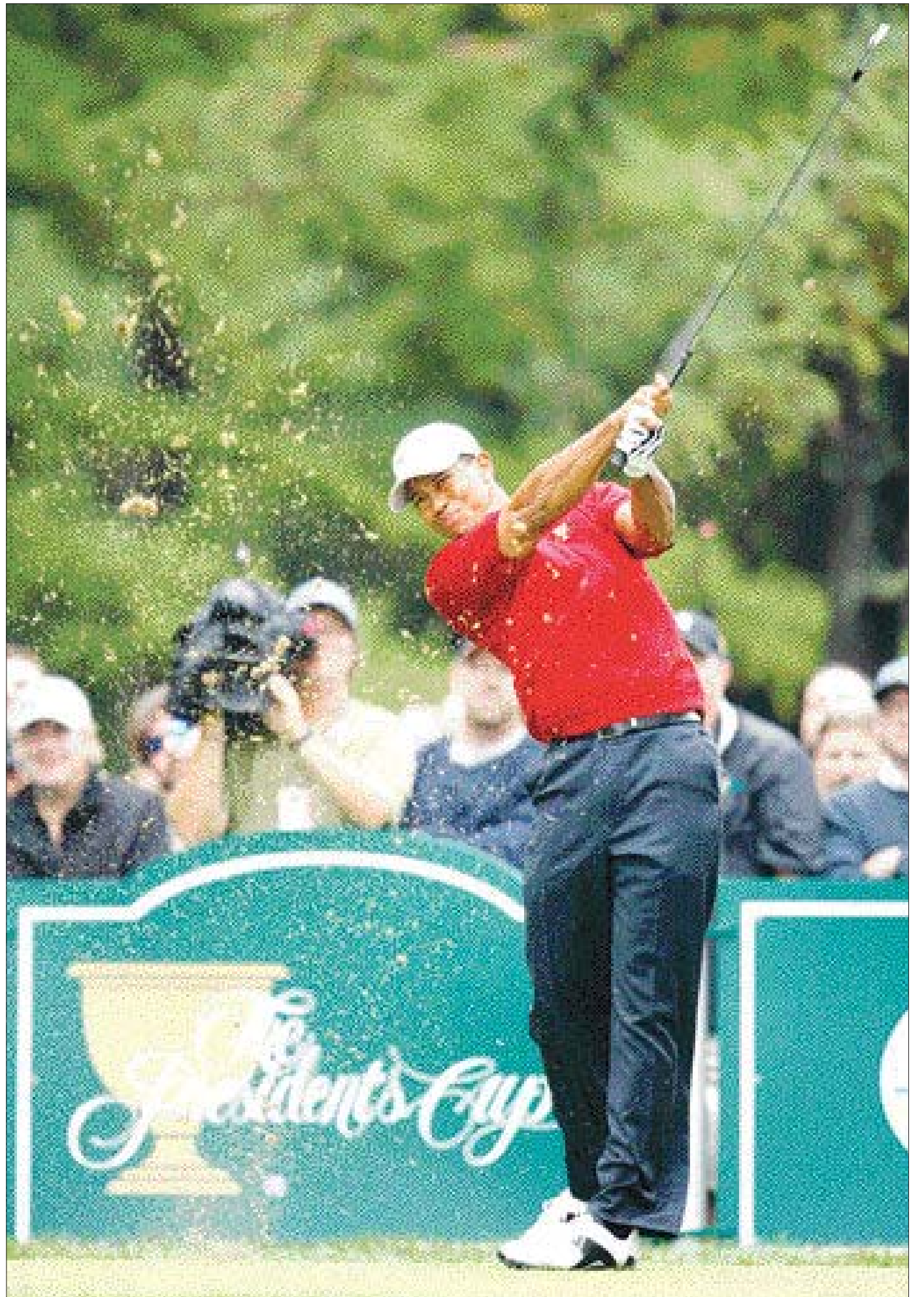
가지고 있어 자칫 시리아전에서 경교를 추가할 경우 본선행의 분수령이 될 우즈베키스탄 원정(11월17일)에 출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성화 감독은 “기성용의 공백은 오장은(울산) 등 기존에 검증된 선수들이 많아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올림픽대표팀 시리아 원정 예비명단

▲GK = 정성룡(포항) 양동원(대전) 송유걸(인천) 김진현(동국대) ▲DF = 정인환(전북) 강민수(전남) 김창수(대전) 김진규(서울) 박희철(포항) 이요한(제주) 신광훈(포항) 최철순(전북) 김태운(성남) ▲MF = 백지훈(수원) 김승용(광주) 이청용(고령) 이상(서울) 이상호 오장은(이상 울산) 이근호(대구) 이승현(부산) 백승민(전남) 박주호(송실대) 김민호(성남) ▲FW = 심영성(제주) 신영록 서동현(이상 수원) 박주영(서울) 한동원(성남)



황제의 티샷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의 로열몬트리올골프장(파70)에서 열린 대륙대항전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 첫날 최경주와 맞대결에 나선 타이거 우즈가 5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탱크, 황제와 맞대결 완패

프레지던트컵 첫날 최경주팀, 우즈팀에 3홀차로 저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대륙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골프대회 첫날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맞대결에서 무릎을 꿇었다.

세계연합팀 ‘에이스’ 최경주는 28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로열몬트리올골프장(파70)에서 포섬 방식으로 치러진 1라운드에서 닉 오현(호주)과 짝을 이뤄 우즈와 찰스 하웰3세가 호흡을 맞춘 미국팀에 3홀차로 완패했다.

세계연합팀 단장 개리 플레이어의 특명을 받고 출격한 최경주와 오현은 우즈와 하웰3세에 크게 밀리지는 않았으나 팀워크에서 엇박자를 내며 끌려다녔다.

변함없는 실력을 과시한 우즈는 특히 힌동생처럼 아끼는 하웰3세가 120% 기량을 발휘하도록 이끌어내는 리더십까지 발휘했다.

미국팀은 6경기가 치러진 이날 5승1무승부로 승점 5.5점을 획득해 0.5점을 따내는데 그친 세계연합팀을 압도, 통산 다섯번째 우승을 바라보게 됐다. 첫날 승점이 5점차로 벌어진 것은 2000년 대회에 이어 최다 승점차 대승.

미국팀 단장 잭 니클러스는 “우리 선수들은 정말 나위없이 잘해냈다”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세계연합팀 단장 개리 플레이어는 “오늘 대회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제 미국을 따라 잡고 역전을 해내야 할 때”라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두 선수가 각자 경기를 펼칠 좋은 쪽 스코어를 팀 성적으로 삼는 포볼 경기로 열리는 2라운드에서 최경주는 스코트와 짝을 이뤄 스티브 스트리커-루카스 글로버와 대결한다.

우즈는 류리과 함께 심-스튜어트 애플비를 상대하고 미켈슨은 베이헌을 파트너로 맞아 구센-카브레라와 맞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백차승 시즌 4승

백차승(27·시애틀 매리너스)이 시즌 마지막 선발 등판에서 빛나는 호투로 승리를 챙겼다.

우안 백차승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탈삼진 두 개를 곁들이며 7안타, 1실점으로 막아 4-2 승리를 이끌었다. 4사구가 없고 투구수 91개 중 스트라이크가 60개나 될 정도로 제구력이 빼어나다. 6월1일 텍사스전 이후 119일 만에 승리를 챙긴 백차승은 시즌 4승3패가 됐고 평균 자책점을 5.15(총전 5.48)로 낮췄다.

이천수 ‘홈팬 달군다’

네덜란드 프로축구 30일 헤렌벤과 데뷔전

이천수(26·페예노르트)가 마침내 네덜란드 프로축구 데뷔를 눈앞에 뒀다.

페예노르트는 30일 오전 3시(이하 한국시간) 홈 구장인 로테르담의 데퀴프에서 SC 헤렌벤과 2007-2008 정규리그(에레디비지에) 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이적 확정 후 20여 일의 기다림 끝에 지난 24일 페예노르트에 공식 입단한 이천수가 네덜란드 무대에서 첫 선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경기다. 이천수는 지난 27일 열린 FC위트레흐트와 네덜란드 컵대회 2라운드(3-0 승)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까지 이천수의 몸 상태가 좋아진다면 헤렌벤전에 교체 멤버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천수는 팀 합류 후 피지컬 트레이너의 지도로 일단 불 없이 회복훈련을 하며 몸을 만들어 왔다.

이번 헤렌벤전 입장권 4만 7천 장은 일찌감치 모두 팔렸다. 네덜란드 언론은 이천수를 보고 싶은 홈 팬의 관심이 입장권 매진에

한 몫 했다고 전했다.

다음달 7일 열린 7라운드 비테세전은 원정경기다. 그래서 이번 헤렌벤전은 이천수가 짧은 시간이나마 홈 팬 앞에서 입단 인사를 전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 컵대회인 칼링컵에서 2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한 이동국(28·미들즈브러)은 30일 자정 예버턴과 원정경기에서 다시 프리미어리그 마수걸이 끝에 도전한다. 27일 토트넘과 칼링컵 3라운드(0-2 패)에서 최전방 원톱으로 90분을 모두 뛰고도 공격 포인트 없이 물러난 이동국으로서의 빨리 리그 첫 골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는 것이 과제다.

설기현(28·풀럼)은 29일 강호 첼시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지난 23일 정규리그 맨체스터 시티전(3-3 무)에서 어시스트를 올려 풀럼 입단 후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던 설기현은 27일 볼턴 원더러스와 칼링컵(1-2 패)에서도 동점골에 한 몫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연합뉴스



멋진 시저스킵

독일과 결승전을 벌인다.

27일 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축구 브라질과 미국의 경기에서 브라질선수가 멋진 시저스킵을 하고 있다. 브라질은 이날 미국을 4대0으로 대파해 오는 30일 밤 9시(한국시간) 상하이에서 독일과 결승전을 벌인다.

/AP=연합뉴스